



전북도는 21일 이원택 도 정부부지사 주재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모여 제22회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 상생발전 활동 내실 도모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개최... 주요사업 공유
기관별 연계협력사업·향후 발전방안 집중 논의

전북도는 21일 이원택 도 정부부지사 주재로 20여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모여 이전기관 연계 혁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22회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기관들이 지역 상생발전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수립한 2019년도 기관별 지역

발전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 계획은 이전기관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이전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여기관 대표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성

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원택 정부부지사는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기관들이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역혁신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발전계획이 잘 시행되도록 전주시, 완주군,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생활SOC 확충으로 삶의 질 UP

전북도, 중앙공모 사업 통해 국비 추가 확보
문화시설 확충으로 도민의 여가 활동 활성화

전북도는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생활SOC 시설이 중앙공모 사업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20개관 국비 17억원, 공공체육시설 31개소 국비 201억원 등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SOC를 살펴보면, 우리동네 정보 사랑방인 작은도서관 20개관(신규 3, 리모델링 17), 언제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공체육시설 31개소(신규 7, 리모델링 24)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가 확보되었으며, 자연 속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3개소(진안·임실·고창)를

구축 중에 있는 등 도민의 여가·건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로컬푸드 센터 2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전주시 삼천동과 익산시 모현동에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인 로컬푸드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총사업비 7억원으로 6개 시군 11개소에 구축 중으로 이를 통해 지역 아동의 상시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0년부터는 일상 생활에 밀접도가 더 높은 시설에 중점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북도와 시군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규사업 발굴, 정부 정책 방향 분석 등을 통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5개 유형 247개 시설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우리도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발굴 및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정부 생활SOC 계획에 우리도 시설의 반영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소상공인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로 전환 '시동'

전북도, 30년 넘게 장사·가업승계 소상공인 '전북천년명가'로 육성
내달 3일까지 공개 모집... 홍보·마케팅·멘토링·자금지원 등

전북도가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전북천년명가'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빈번한 창·폐업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북천년명가'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천년명가'육성사업은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홍보·마케팅·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10개 업체를 선정 할 계획으로 올해는 4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유흥업·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며, 가업 승계의 경우에

는 대표자(창업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자가 해당된다.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와 더불어 불시에 방문 평가하는 '암행상사' 등 총 4차례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3년동안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과 협업, 일괄 지원한다.

'전북천년명가'인증현판 제공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과 신규 프로그램 편성 집중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업로드, 전북 투어패스와 연계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경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전문 멘토링 지도, 특별보증, 프랜차이즈와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업체만의 노하우와 경영개선 경험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멘토링의 역할을 부여

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정 후 경영, 재무상태 등의 성과를 매년 재평가하여 기준 미달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북 대표주자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천년명가'신청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717-1304)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중소기업의 고령화,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기... 분양률 68% 기록

네오클, 익산 제3산업단지 투자 확정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21일 시청에서 정현율 익산시장, 운영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유)네오클 한뿌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유)네오클은 이날 협약에 따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4,960㎡ 부지에 20억원을 투자하고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오클은 신생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살균소독 및 탈취가 필요한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순수 이산화염소수(CO2)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산화염소는 무알콜, 무방부제, 무독성, 친환경 성분으로 향으로 냄새를 덮는 일반 대다수의 방향 탈취제와 달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각종 유해세균을 99.9% 제거하는 현재 가장 안전한 환경 친화적인 탈취제로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제3, 4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기업체의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가 순항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최근 기존 입주업체들의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들의 익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67%, 제4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77%로 전체 분양률은 68% 정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61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직접 고용인원만 1,300여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향후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인 하림식품, 농협캐미칼, 경인양행 등 주요업체가 정상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2~3년 후에는 고용도 사업계획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착한론 특례보증 '대박'... 출시 한 달만에 400억 중 230억 소진

전북도 착한론(Good loan) 특례보증 이 도내 소상공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착한론 특례보증은 지난 2월말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는 글자 그대로 '착한 대출'이다.

대출금리(3%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여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이며,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기간 중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 특별한 보증상품이다.

특히,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7등급 이하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15% 이상의 고금리 이용 소상공인에게 이례적으로 100% 전액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출시 한 달 만에 총 지원규모 4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30억원(1,200개사)이 소진되

는 그야말로 초대박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4월 초에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북도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 4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소진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반면, 착한론은 단 2달만에 사업 소진이 예상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시급적인 사업임이 입증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